

陸史 李源祿 研究

— 狀況과 詩人意識의 問題를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勝 立

指導教授 梁 重 海


1984年 月 日

金勝立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E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石 昌 弼 

副審

金 榮 敦 

副審

梁 秉 海 

1984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I - 1. 問題提起	1
I - 2. 점검의 視覺	2
II. 陸史의 生涯와 時代的 位相	4
II - 1. 生涯的 遍歷	4
II - 2. 時代的 位相	7
III. 陸史詩의 意味網	9
III - 1. 作品年譜	9
III - 2. 어두운 現實과 悲劇的 世界認識	12
III - 3. 漂浪과 葛藤	17
III - 4. 歷史意識과 기다림의 哲學	23
IV. 陸史詩의 史的意義	29
V. 結 論	33
○ 參考文獻	36
○ Abstract	37

I. 序 論

I-1. 問題提起

韓國詩의 한 主流가 萬海·東柱·陸史 등에 놓여 있다 할 때, 그것은 精神史의 傳統的 側面을 강조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대저 韓國詩와 韓國近代詩의 概念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萬海·東柱·陸史 등의 詩가 엄격한 意味에서 文學의 近代的 次元 이전의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韓國詩의 한 주류이나, 韓國近代詩의 한 주류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탁월한 詩的 意志와 精神的 優위를, 韓國近代詩를 論하는 어느 누구도 형식적 의장이나 표현 및 기교의 현대성을 비추어 쉽게 폄하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近代文學이 植民地라는 特殊한 政治的 狀況과 함께 배태되고 성장했다는 점, 植民地의 억압적 요소와 그것으로 인한 自國의 모든 社會的·文化的 樣式의 변질 속에 最後까지 그 불씨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 精神史의 側面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韓國詩의 한 傾向성이 방법적 드러냄으로서의 詩的 樣式을 통한 자기상실의 방어 내지는 극복의 문제에 있음을 충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植民地 時代의 韓國文學에 관한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많은 論議들은, 그것들이 某種의 風聞 속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문제의 사태를 歪曲시켰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인상은 그것들이 공고한 實證을 거치지 않았거나 확연한 論據를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잘못된 先入見에 의해서거나 또는 歷史的 側面이나 言語的 構造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方法論의 混濁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과 같은 문제는 特別히 詩를 論議하는 데서 더 많은 誤謬를 빚고 있는데, 이른바 ‘抵抗詩人’이라는 에피세트로 일관되어 온 萬海·陸史·東柱 등에 있어서는 한결

더한 감이 없지 않다. 그것들의 원인은 韓國 現代史의 悲劇의 原型을 이루는 植民地 時代의 精神的 傷處에 대한 補償心理인 民族主義的 志向이라는 原初的인 感情의 制約과, 그들의 탁월한 偉大性에 대한 心理的 壓迫感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精神的 傷處와 心理的 壓迫感에서 그 누구도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抵抗詩人’이니 ‘志節詩人’이니 하는 막연한 에피세트가 冷靜한 省察을 거쳐서 이루어진 소산이 아니라는 데 있다. 陸史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 時代의 한 文學研究家는 陸史의 「青葡萄」를 논의하면서, 陸史는 祖國光復을 東柱의 그것처럼 ‘손님’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 이러한 단순한 省察의 誤謬는 우리에게 면밀한 再檢討를 要請하게 한다.

요컨대, 植民地 時代의 詩와 詩人을 舉論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찬양하거나 그들의 業績을 誇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苦惱와 決斷에 人間的 實體를 찾아주는 일’²⁾ 일 것이다.



I-2. 점검의 視覺

1946년 그의 아우이며 30년대 評壇의 핵심적인 한 사람이었던 李源朝와, 그의 친구인 詩人 申石艸에 의해 『陸史詩集』이 刊行된 이후 陸史 李源緣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詩人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에 관해 많은 글들이 씌어졌지만, 그에게 바쳐진 여러 글들은 추모의 형식을 띤 感情的인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언급의 정도에 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작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萬海·東柱 등과 함께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 1) 金治洙, “植民地時代의 文學”, 金炳翼 外 共著, 「現代韓國文學의 理論」(서울: 민음사, 1974), pp.236 ~ 237.
- 2)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創作과 批評」통권 40호 (1975, 여름), p.230.

“두 개의 雜誌가 그의 特輯을 꾸몄으며³⁾ 몇 편의 주목할만한 論文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1975년에 『李陸史全集』이 發刊되고 그의 最初의 作品이라고 判定되는 「말」⁴⁾이 發見되는 등 그의 작품정리도 한결 明確해진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여러 論議들은 서로 相反되거나 相衝된 論理의 混沌 속에 있는 듯하며, 어두운 時代에 있어서 陸史는 무엇에 挫折했고 무엇에 葛藤했으며 어떻게 그러한 挫折과 葛藤을 넘어섰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의 金剛心이나 서릿발같은 意志만을 강조하면서 그의 抵抗性을 단순하게 超人的·그것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安逸함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本稿는 이러한 일련의 論議를 止揚하면서, 陸史의 참된 人間과, 暗黒期에 있어서 陸史의 詩가 갖고 있는 意味內容을 詩人意識의 面에서 살펴보는 데에 그 뜻을 두고 있다.

‘作品은 삶과 <絶緣된 것>은 아니지만 <區別되는 것>’⁵⁾이라는 주장은 마땅히 옳고 또한 그 逆도 성립될 터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陸史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을 살펴본 다음 그의 詩世界를 分析함으로써, 서로 어긋나는 극단적 방법론의 態度를 止揚·綜合할 것이다.

3) 「나라사랑」 16집과 「文學思想」 통권 40호.

4) 朝鮮日報, 1930년 1월 3일자.

5) 金興圭, 前揭論文, p.233.

II. 陸史의 生涯와 時代的 位相

II-1. 生涯的 通歷

陸史 李源緣은 1904년 慶北 安東郡 陶山面 遠川洞에서 亞隱公 李家鎬와 金海 許氏 吉 사이에 6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⁶⁾ 安東地方은 대대로 어느 지역보다 보수적인 朱子主義의 세례를 깊이 받은 곳으로 여기에서 많은 훌륭한 선비와 志士들이 배출된 바 있다.

특히 陸史는 退溪의 十四代孫이요, 刑曹參判을 역임한 바 있는 仕隱 李龜雲의 六代孫으로서 뿌리깊은 儒家의 傳統 아래 자라났다.

陸史의 父 亞隱公은 1905년에 楊州郡守로 薦擧되었으나 斷髮令에 反撥하여 한 平生을 處士로 보냈다 한다. 母系를 보면 그의 外祖父인, 韓末 抗日義兵의 巨頭 凡山 許衡을 비롯하여 많은 義兵將을 배출한 氣概높은 家門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 祖父에게서 漢學을 修學하였고, 어머니로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배워온 것이 세 살 때부터 버릇’⁷⁾이 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이 보여 주듯이, 그는 驕童이라고 불릴 만큼 自尊하는 精神 속에서 自身을 단련한다.

性格이 대쪽같아서 어른이 야단쳐도 自身은 잘못했다 降伏하지 않았다. 그가 한 行動은 그의 判斷이 옳은 쪽으로 선 위에 實行한 것이기 때문이다.⁸⁾

사실상 陸史에게 있어서 父系의 漢學과 母系의 氣概는 그의 性格形成의 根源的 母胎가 된 것이다.

6) 李明子, “새 資料를 통해 본 李陸史의 生涯”, 「文學思想」 통권 40 호 (1976.1), p.227.

7) “계절의 5행”, 「李陸史 全集」 (서울: 正音社, 1975), p.143. 이하 全集이라 略함.

8) 당숙 李勳鎬의 증언,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 探訪」 (서울: 국민서관, 1973), p.292에서 再引用.

그러나 嚴格한 規範과 傳統的 雰圍氣의 影響 밑에서 자라온 陸史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이 땅은 悲劇的인 庚戌國恥를 맞는다. 韓日合邦은 陸史의 家門으로 하여금 激浪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朱子主義的 理念이 崩壞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研究家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植民地란, 保守的인 儒教倫理의 立場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父意識의 喪失을 意味한다. 父意識의 喪失이란 既存의 傳統 속에 자라온 사람들에게 ‘뿌리 뽑힌 者’로서의 意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金興圭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家門과 鄉里는 幼少年期를 形成한 巨大한 傳統의 힘이면서, 同時에 歷史的으로 볼 때, 새로운 世界를 制御할 힘을 잃고 崩壞해 가는 힘’⁹⁾ 이었다.

過去에 그들이 가졌던 理念은 이제 存在의 價値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激浪 속에서 새로운 對應의 자세를 要請하게 된다. 陸史의 祖父 痴軒公은 庚戌國恥를 맞아 거느린 婢僕들을 풀어주고 奴婢文書를 燒却하여 奴婢들에게 땅을 나눠주었고 鄉里와 가까운 禮安에 新教育 機關인 普文義塾을 세우는 등 매우 革新的인 態度를 보인다. 이러한 祖父의 影響은 儒家에서 자란 陸史에게 훗날 進取的인 思考를 가능케 해 준다.¹⁰⁾

以後 陸史는 普文義塾, 白鶴學校, 大邱 嶠南學校 등을 轉轉하며 新學問을 배우면서, 日帝의 苛烈된 植民地 統治와 3·1 運動 등의 社會的 激變 속에서 ‘그야말로 살풍경의 십년’¹¹⁾ 을 보낸다.

宋相燾의 『騎驢隨筆』에 의하면, 陸史는 1925년 그의 나이 22살 때 伯兄인 一荷公과 叔弟 源一과 함께 抗日團體인 正義府와 軍政署, 그리고 義烈團에 加入했다고 記錄하고 있다. 義烈團은 1919년 11월 10일 吉林省 把虎門 밖의 中國人 집에서 組織된 抗日秘密團體로, 韓國獨立運動史上 暗殺과 破壞 등 暴力을 唯一의 抗日

9) 金興圭, 前揭論文, p.235.

10) 金容稷, “抵抗의 論理와 그 精神的 脈絡”, 「韓國現代詩研究」(서울: 一志社, 1974), p.387. 參照.

11) “戀印記”, 全集, p.166.

鬭爭手段으로 삼아 抵抗運動을 展開한 團體로서 이를 능가할 團體는 없다고 한다.¹²⁾

이 때부터, 陸史의 抗日運動은 本格的으로 展開되는데, 그는 北京, 上海 等地를 오가며 주로 連絡員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7년 北京에서 잠시 歸國한 그는 그 해 가을에 張鎮弘 義士의 朝鮮銀行 大邱支店の 爆彈投擲事件에 連累되어 源祺, 源一, 源朝 등과 함께 四兄弟가 피검되는데,¹³⁾ 以後로 그는 전부 17 차례에 걸친 投獄의 苦楚를 겪는다. ‘매일처럼 피옷을 받아내야 했다.’¹⁴⁾ 는 그의 婦人 安氏의 述懷가 당시의 상황을 雄辯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때의 그의 囚人番號가 64 (或은 264)여서 그 音을 取하여 雅號를 스스로 陸史(대륙의 선비)라 지었다고 한다. 이것만 보고도 그의 氣概를 능히 짐작할 만하다.

1929년 光州學生事件에 관련되어 다시 檢舉되었다가 풀려나온 陸史는 이 때 朝鮮日報 支社 記者로 活動하면서 靑年指導에도 힘썼는데 이 무렵에 處女作 「말」을 發表했다.

그 후, 陸史는 獨立運動을 하면서 北京에서 朝鮮軍官學校를 修了하고, 北京大學 社會學科에서 修學했다고 한다. 北京大學 社會學科를 다닌 事實은 正確한 根據가 提示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의 中國에 관한 일련의 政治·社會 評論들이 그 事實을 代辯해 준다. 특히 「위기에 임한 中國 政局의 전망」과 「中國靑幫秘史小考」라는 두 篇의 政治에 관한 論說은 당시의 中國情勢를 組織的이고도 綿密하게 파헤친 成果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글들에서 陸史는 國民黨 政권의 虛僞性을 날카롭게 批判하고 封建主義와 帝國主義에 관해 徹底하게 罵倒한다.

陸史의 思想的 지향성은, 그의 義烈團 活動이나 抗日鬭爭이 극비리에 展開된 것으로써 아직 綿密히 알 수는 없으나 여러 研究者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社會主義的인 性格을 띤 것으로 보인다. 그의 社會主義的 지향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보다 正鵠을 찌른 것으로 判斷된다.

12) 「韓國現代史」 제 5권 (서울: 신구문화사, 1968), p.87. 參照 .

13) 이 사건은 사실상 육사형제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한다. 이동영, “이육사의 獨立運動과 生涯”, 「나라사랑」 16집 (1974), p.117 참조.

14) 金容誠, 前揭書, p.293. 에서 재인용.

그러면 그의 思想的 지향성은 무엇인가? […………] 그것은 社會主義的인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의 態度는 적극적 社會主義運動이나 理論鬭爭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植民主義와 買辦的 資本 및 政治勢力이 횡행하는 時代에 있어 양심적 知識人이 가지게 되는 批判意識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른다.¹⁵⁾

그렇다면 그의 社會主義的 지향성은 잘못된 狀況에 대한 批判意識이라고 換置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魯迅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가 「魯迅 追悼文」을 쓰는 자리에서, 魯迅을 만났을 때의 狀況을 감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陸史는 1943年 北京에서 잠시 歸國했다가 日警에 被逮되어, 애타게 그리던 光復을 눈 앞에 두고 1944年 1월 北京監獄에서 그의 한 많은 一生을 마쳤다.

II - 2 . 時代的 位相

이제 우리는 당시의 時代的 狀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陸史가 살았던 時代는 대략 日帝의 植民地 統治 期間과 일치한다. 또한 陸史가 抗日鬭爭에 몸 바친 時期는 日帝의 植民地 統治가 가장 가열된 狀況이었다. '31년의 滿洲事變에 이어 '37년의 中·日戰爭 등의 극심한 桎梏의 狀況에서 日帝는 韓半島를 兵站基地化하였고 우리 民族에게 內鮮一體라는 허울좋은 美名 아래 神社參拜, 創氏改名, 우리말 사용 금지 등을 抑壓的으로 강요했다. 1940년을 前後하여 東亞·朝鮮日報 등의 言論을 閉鎖하였고, 이 땅의 識者들에게 親日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한 史學者가 이 때를 가리켜 우리 民族의 '자주의 말살기'¹⁶⁾라고 規定할 만큼 가장 絶望的인 때였다. 이러한 사정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할 것 없이 모든 面에서 우리 民族의 活力을 차단한 것이었다.

陸史는 바로 이러한 極限狀況에서 獨立運動에 뛰어 들었고 그의 詩를 남겼다.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된 삶 속에서 그는 그가 반드시 回復해야 할 理念을 爲하여

15) 金興圭, 前掲論文, p.237.

16) 최창규, “이육사 時代의 사상사적 좌표”, 「나라사랑」 16집, p.29.

身命을 바쳤고 挫折과 漂浪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勞力을 통해서 敗北主義를 克服하였다. 그가 고통스러워 했던 점은 自身の 幼年期의 幸福한 삶이 再現되지 않는 데 있었다. 幼年期의 幸福한 삶이란 바로 朱子主義의 理念이 어느 정도 頑強히 지켜졌던 社會를 뜻한다. 그래서 그는 挫折했고 어두운 漂浪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땅히 지켜야만 할 精神的 支柱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많은 論者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선비정신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挫折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 敗北主義와 知的 虛無主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삶의 完成이었기 때문이다.

안일한 삶에 대한 誘惑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고통스러운 勞力 속에 陸史는 자신의 理念을 확대하였다. 그것은 民族의 올바른 삶을 향한 意志였다.

陸史는 흔히 지적하듯이 그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自身이 분명히 회복해야 할 理念을 위해서, 모든 誘惑이나 葛藤을 克服할 수가 있었다. 그의 偉大性은 바로 葛藤을 가진 人間으로서 그것을 힘겹게 넘어선 데 있다고 보아진다.



Ⅲ. 陸史詩의 意味網

Ⅲ-1. 作品年譜

이제 우리는 陸史의 詩世界를 살펴볼 자리에 이르렀다. 陸史의 詩的 遍歷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1930년에서부터 그가 생을 마친 1944년에 걸친 약 15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特別한 狀況과 任務를 지니고 있었던 만큼 당시의 餘他の 詩人들에 비하여 持續的인 活動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태까지 밝혀진 그의 詩篇은 漢詩 3편을 제외하면 전부 33편의 양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詩的 면모를 살피기에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15년간의 詩作으로는 상당히 과작이라 할 것이다.

연도별로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30년 …… 「말」 (조선일보)
- 1933년 …… 「황혼」 (新朝鮮)
- 1935년 …… 「春愁三題」, 「失題」
- 1936년 ……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風林)
- 1937년 …… 「路程記」 (子午線)
「海潮詞」 (風林)
- 1938년 …… 「草家」 (批判)
「江 건너간 노래」 (批判)
「小公園」 (批判)
「鴉片」 (批判)
- 1939년 …… 「絶頂」 (文章)
「南漢山城」 (批判)
「青葡萄」 (文章)
「年譜」 (詩學)

- 「湖水」(詩學)
- 1940년 …… 「斑猫」(人文評論)
「日蝕」(文章)
「西風」(삼천리)
「喬木」(人文評論)
- 1941년 …… 「獨白」(人文評論)
「娥眉」(文章)
「子夜曲」(文章)
「서울」(文章)
「苞蕉」(春秋)
- 1942년 …… 「狂人の 太陽」(朝鮮日報)
- 遺稿 …… 「나의 뮤즈」
「曠野」
「少年에게」
「邂逅」(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꽃」
「蝙蝠」(이상 「陸史詩集」 1946년)
「바다의 마음」(미발표유고)

이상의 작품연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1938년에서 1941년까지의 4년동안이 그래도 얼마간 작품을 제대로 발표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間歇적으로 展開된 그의 詩世界를 살펴봄으로써, 陸史의 참모습에 한층 더 가까와질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陸史의 詩的 出發은 1930년 朝鮮日報 1월 3일자 紙上에 發表된 「말」로 추정된다. 이 作品은 發表日字와 마침 그 해가 干支로 말띠해인 것으로 보아 新年頌의 性格을 띤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가 朝鮮日報 支社 記者로 있을 때 發表한 것으로 判斷되는 이 作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陸史의 詩世界를 理解하는 데 極重

要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한 詩人에게 있어서 處女作이 곧 回歸單位
를 意味한다는 소박한 명제에서보다도 이 詩가 陸史의 詩世界를 集約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홀으러진 갈기
후즐근한 눈
밤송이같은 털
오! 먼길에 지친

수긋한 목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네 굽
오! 구름을 헤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흰 말이여!

-「말」 全文 - 17)

2연 9행의 비교적 짧은 이 詩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말(馬)의 현상적 상태
를 평범하게 진술한 것 같으나 그 내용의 심도는 의미심장하다.

勞動과 旅程에 지친 말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서리에 번쩍이는 네 굽’으로 ‘구
름을 헤치려는’ 大望의 克服意志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이 詩는 결국 陸史가 自身
을 말(馬)에 依託해서 自身の 意志를, 나아가서는 우리 民族의 意志를 형상화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을 지치게 하는 要素는 日帝의 抑壓이나 植民地 狀況의
궁핍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하튼 그의 渴求는 ‘새해에 소리치는’ 데
있다. 이 詩는 論理的 發展이 散漫한 陸史詩의 總體的 構造를 보다 분명하게 提示
해 주고 있다.

17) 李陸史, 「曠野」 (서울: 민음사, 1977)

앞으로의 陸史詩 인용은 이에 준하며, 가능한한 全文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註를 밝히지 않는다.

Ⅲ-2. 어두운 現實과 悲劇的 世界認識

· 陸史의 詩는 어두운 現實에서 오는 悲劇的인 世界認識에 그 出發點을 두고 있다. 그것은 本質的으로 故鄉喪失에서 오는 것으로써, 이 때의 故鄉喪失은 外的으로는 殖民地 狀況을 가리키고 있고, 內的으로는 過去에 가졌던 그들의 價値理念의 喪失, 즉 ‘뿌리뽑힌 者’로서의 그것이다. 朱子主義的 理念이 지향하는 公的 行動의 正當성이 無化되어 버린 시점에 그는 서 있었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에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드리느라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 「子夜曲」 —

그가 생각하는 故鄉은 ‘수만호 빛이래야 할’ 곳이다. 그러나 殖民地의 어두운 現實은 그러한 밝고 아름다운 故鄉을 ‘무덤우에 이끼만 푸른’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 면면히 이어지는 傳統으로서의 ‘강물’도 흐르지 않는 숨막...히는 狀況에서 그는 처절하리만치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거친 惡夢에 시달

린다.

陸史에게 있어 이러한 암담한 現實은 곧 原初的인 理想郷의 喪失을 意味하는 것이다. 植民地 狀況의 어두운 現實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認識을 보여주는 作品으로 우리는 「草家」를 들 수 있다.

구겨진 하늘은 무근 애기책을편듯
돌담울이 古城가티 둘러싼山기슬
쌩퀴 나래밑에 黃昏이 무쳐오면
草家 집집마다 호롱불이켜지고
故郷을 그린 墨畵한폭 쯤이쳐.

되염 되염 보히는 그림 조각은
압발에 보리밭헤 말매나물 캐러간
가신애는 가신애와 종달새소리에 반해
빈바구니 차고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싼 두쌈우에 모매뚝이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오면 豊年이든다더니
압내江에 씨레나무 밀려나리면
절문이는 절문이와 뗏목을 타고
돈벌로 港口로 흘러간 몇달에
서리스발 입저도 못오면 바람이분다.

피로가꾼 이삭에 참새로 날라가고
곰처럼 어린놈이 北極을 쫓꾸는데
늘근이는 늘근이와 싸호는 입김도
벽에서려 성애끼는 한겨울 밤은
洞埜의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

— 幽廢된 地域에서
— 「草家」 —

‘幽廢된 地域에서’ 라는 副題에서 알 수 있듯이 「草家」의 世界는 부정적이고

沒落하는 죽음의 世界이다. 소박한 理想郷으로서의 過去의 故郷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回想마저도 불가능한 처절한 狀況이다. (‘故郷을 그린 墨畵 한 폭 줌이 쳐’)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궁핍을 면하려고 故郷을 떠나고 늙은이와 어린애들만이 남아 부질없는 다툼을 벌이는 곳, 豊年이라는, 그들의 가장 순수한 기대감마저도 完全히 挫折되어 버린 狀況에서는, 2 聯의

압밭에 보리밭헤 말매나물 캐러간
 가신애는 가신애와 종달새소리에 반해
 빈바구니 차고오긴 너무호 부끄러워
 술래싼 두쌍우에 모매꽃이 피였고.

에서 보이는 過去의 아름답고 순박한 世界에 대한 그리움도 한낱 幻想에 불과할 뿐이다. 이 詩에서도 ‘江물’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것 역시 마을의 歷史와 傳統을 얘기해주는 ‘密告者’의 그것으로, 그런 ‘江물조차 얼붙는’ 歷史와 傳統이 끊긴 世界, 어쩔 수 없는 生存만 남은 植民地의 궁핍상을 陸史는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植民地의 궁핍상과 황폐한 현실을 가져오는 이유로 陸史는 日帝의 抑壓과 虛偽的 造作을 들고 있다.

하늘이 높기도 하다
 고무 풍선 같은 첫겨울 달을
 누구의 입김으로 불어 올렸는지?
 그도 반넘어 서쪽에 기울어졌다

행랑 뒷골목 호젓한 상술집엔
 팔려 온 冷害地處女를 둘러싸고
 大學生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思想善導의 염담꾼 밑에 떨고 있다.

라디오의 修養講話가 끝이 났는지?
 마-장 俱樂部 문간은 하품을 치고
 벨딩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都市의 良心을 지키나 보다

바람은 밤을 집어삼키고
아득한 까스 속을 흘러서가니
거리의 주인공인 해태의 눈깔은
언제나 말짱게 푸르러 오노

—「失題」—

이 詩에서 ‘思想善導의 염담꾼’이나 ‘라디오의 修養講話’라는 말이 주는 意味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日帝의 植民地 統治의 抑壓과 虛偽的 造作的 強要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陸史는 풍자와 자조가 섞인 語調로, 日帝의 軍國主義의 酷毒한 彈壓으로 인하여, 社會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批判的 機能을 담당해야 할 知性 (=大學生)이 오히려 술과 女子에 靡여있고, ‘빨딩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오히려 ‘都市의 良心’을 지킨다는 아이러니칼하면서도 極端的으로 挫折된 狀況을 尖銳하게 드러내고 있다.

陸史의 悲劇的 世界認識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어두운 現實로 인한 理想郷의 喪失과 그것을 回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回復이 불가능한 데서 기인한다. 悲劇的 世界觀이란, 루시앙 골드만에 의하면 다름 아닌 ‘서로 모순되는 두 요구, 자아의 진실과 세상의 허위 속에 고뇌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태도’¹⁸⁾인 것이다. 陸史에 있어서 自我의 眞實은 過去의 아름다운 故郷에 대한 憧憬과 回復意志이고, 世上의 虛偽란 日帝의 植民地 統治의 極烈한 抑壓으로 인한 그것의 불가능이라 얘기할 수 있다.

陸史의 이러한 悲劇的 世界認識은 그로 하여금 極端的인 絶望과 悲嘆에 젖게 한다. 植民地 狀況 속의 우리 民族을 ‘박쥐’에 비유한 「蝙蝠」이란 詩에서 그는 ‘가엾은 박쥐여!’라고 悲壯한 語調로 노래하고 있다.

18) 金禹昌, “궁핍한 時代의 詩人”, 「궁핍한 시대의 시인」 (서울: 민음사, 1977) p.126.

光明을 背反한 아득한 洞窟에서
 다 색은 들보라 문허진 城砦 위 너 헐로 도라단이는
 가엾은 빠취여! 어둠에 王者여!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자집 庫간으로 도망했고
 大鵬도 北海로 날러간 지 임이 오래거늘
 검은 世紀에 喪裝이 갈갈이 찌저질 긴 동안
 비답이 같은 사랑을 한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가엾은 빠취여! 孤獨한 幽靈이여!

앵무와 함께 종알대여 보지도 못하고
 딱따구리처럼 古木을 쪼아 울니도 못하거니
 만호보다 노란 눈깔은 遺傳을 원망한들 무엇하랴
 서러운 呪文일사 못 외일 苦悶의 잇빨을 갈며
 種族과 蠃(蟻)를 일허도 갈 곳조차 업는
 가엾은 빠취여! 永遠한〈보헤미안〉의 녀시여!

재 情熱에 못익여 타서 죽는 不死鳥는 안일망정
 空山 잠긴 달에 울어새는 杜鵑새 흘니는 피는
 그래도 사람의 心瑟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 안는가!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슴의 연한 肝을 노려도 봤을
 너의 머니 祖先의 榮華롭든 한시절 歷史도
 이제는 〈아이누〉의 家系와도 같이 서러워라
 가엾은 빠취여! 滅亡하는 겨레여!
 運命의 祭壇에 가늘게 타는 香불마자 꺼졌거든
 수많은 새증승에 빌붙칠 愛嬌라도 가졌단말가?
 相琴鳥처럼 고향 畔을 채롱에 팔지도 못하는 너는
 한토막 꿈조차 못꾸고 다시 洞窟로 도라가거니
 가엾은 빠취여! 검은 化石의 妖精이여!

—「蝙蝠」—

Ⅲ-3. 漂浪과 葛藤

陸史는 極端的인 絶望의 狀況에서도 끊임없이 ‘개인 날의 무지개’¹⁹⁾를 希求했고 그것을 獲得하기 爲하여 義烈團 加入을 통해 抗日鬪爭에 나선다. 그러나 그것은 身命을 바치는 싸움이었고 고독한 鬪爭이었다. 그래서 陸史의 詩는 ‘〈현실의 어두움〉과 〈반항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드러내고’²⁰⁾ 있다. 그의 自傳的인 詩篇들은 이러한 사정을 매우 잘 비쳐주고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여진 배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漁村보담 어설프고
삶의 퇴끝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매였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지만
밤마다 내 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潮水에 부푸러 올랐다

항상 흐렸한 밤 暗礁를 벗어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이 비쳐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빠즌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느 港口의 路程에 흘러간 生活을 드러다보며

—「路程記」—

19) “계절의 표정”, 全集, p.183.

20) 金仁煥, “陸史詩의 系譜”, 「文學과 文學思想」(서울:悅話堂, 1978), p.120.

그의 처절한 漂浪을 보여주고 있는 이 詩에서 陸史는 ‘머－ㄴ 港口의 路程에 흘러간’ 自身の 生活을 돌이켜 보며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과 같다고 노래한다. 사실상 비밀리에 목숨을 건 抗日鬪爭을 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오래묵은 布帆’ 처럼 티끌만 남은 것이었다. ‘暗礁’ 와 ‘颱風’ 으로 상징된 苦難의 現實에서 그는 항상 ‘쫓기는 마음 지친 몸’ 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잠시라도 慰安과 休息을 갖고 싶은 그에게 한 치의 여유도 허용함이 없이 다시 새로운 壓力이 作用하는 것이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와 같은 詩行은 그러한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암담한 사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된 鬪爭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南十字星’이나 ‘珊瑚島’ 는 너무도 멀어 陸史는 極度の 絶望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自身을 ‘거미’ 와 ‘소라껍질’ 에 비유하는 자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것은 거칠게 규정한다면, 정상적인 生活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질투의 叛軍城」이라는 隨筆文에서 ‘生活을 갖지 못하였다.’²¹⁾ 고 술회하기도 한다.

이러한 絶望과 그것으로 인한 자조적인 態度는 陸史로 하여금 결국 快樂과 安逸한 삶에 대한 強烈的 誘惑을 갖게 한다. 그것은 그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渴求와 希願이 강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挫折感도 커서 부정적으로 表出된 삶의 모습이다. 金宗吉이 ‘관능이나 퇴폐의 기미조차 엿보이기도 한다.’²²⁾ 고 지적한 「鴉片」과 같은 詩는 이런 부정적인 慾求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1) 全集, p.194.

22) 金宗吉, “陸史의 詩”, 「眞實과 言語」 (서울: 一志社, 1974), p.103.

나뒸한 南蠻의 밤
燔祭의 두레스불 타오르고

玉들보다 찬 녀이 있어
紅疫이 만발하는 거리로 쏘려

거리엔 <노아>의 洪水 넘쳐나고
위태한 섬우에 빛난 별하나

너는 고 알몸동아리 香氣를
봄마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무지개같이 恍惚한 삶의 光榮
罪와 곁드려도 삼죽한 누리

—「鴉片」—

快樂과 安逸한 삶에 대한 安住는 그러나 陸史에게 있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지개같이 恍惚한 삶의 光榮
罪와 곁드려도 삼죽한 누리

(上點: 筆者)

의 詩行의 上點 적은 부분이 보여주듯이, 그는 그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그러한 歪曲된 삶을 希求하는 自身이 罪를 범하고 있다는 事實을 뚜렷이 認識하고 있었다. 陸史가 그러한 부정적인 삶을 택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拒否作用을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陸史의 內部에 잠재되어 있는 傳統意識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선비정신이라 할 수 있다. 선비정신이란 요컨대 志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根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陸史는 이런 相衡된 두 삶의 요구에서 심한 葛藤을 겪는다. 그러나 朱子主義 理
念이 무너져 버린 어두운 時代에 있어 志節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
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굴레를 씌워준 傳統意識은 그를 상당히 制約한
다. 여기에서 陸史는 마침내 傳統과 家門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괴로운 葛藤을 보
여준다.

「너는 돌다리목에 쥐었다」든
할머니 편잔이 참이라고하자

나는 진정 江 언덕 그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몰라?

그러기에 열여덟 새봄은
벼들피리 곡조에 부러보내고

첫 사랑이 흘러간 港口의 밤
눈물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드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했나?
바람에 부쳐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밟고 걸어간 새벽길우에
肝臟만 새하얗게 단풍이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해도
쇠사슬을 잡아맨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래이며 파람도불지

— 「年譜」 —

어렸을 적에 할머니들이 흔히들 하는 농담조의 이야기를 眞實로 인정해 버리려
고 안간힘을 쓰는 陸史의 葛藤의 한 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詩篇은 自身の 傳

統과 家門마저 부정하고 自己를 한낱 ‘문바지’로 스스로 卑下하는 悲劇的인 몸짓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陸史는 反省的인 意識의 所有者였다. 그는 결코 民族을 外面하고 자신의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爲人은 아니었다. 그는 植民地의 궁핍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民族의 悲慘한 生活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에게는 차마 거역하지 못할 民族史的 要請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길래 그는

洞房을 차자드는 新婦의 발자취 같이
조심스리 거러오는 고이한 소리!
海潮의 소리는 네모진 내 들창을 열다.
이밤에 나를 부르는니 업스련만?

[……………]

이밤에 날 부름이 업거늘! 고이한 소리!
曠野를 울니는 불 마진 獅子의 呻吟인가?
오 소리는 莊嚴한 네 生涯의 마즈막 咆哮
내 孤島의 매태긴 城廓을 깨트려다오!

産室을 새어나는 娉婉의 큰 괴로움!
한밤에 차자 올 귀여운 손님을 마지하자.
소리! 고이한 소리! 地軸이 메지게 달려와
고요한 섬밤을 지새게 하난고너

巨人的 誕生을 祝福하는 노래의 合奏!
하날에 사모치는 거룩한 깃뼉의 소리!
海潮는 가을을 불너 내 가슴을 어르만지며
잠드는 넋을 부르다. 오-海潮! 海潮의 소리!

— 「海潮詞」의 一部 —

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결소리마저 自身을 부르고 있다는 覺醒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그는

解放을 約束하든 그날 밤의 陰謀를
먼동이 트기 전 또다시 속삭여

—「海潮詞」의 一部—

보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거룩한 깃뚝’을 느낀다.

내 골사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黃昏을 맞아드리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人間은 얼마나 외로운것이냐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鐘소리 저문 森林속 그윽한 修女들에게도
세멘트 장관우 그 많은 囚人들에게도
의지 가지없는 그들의 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沙漠을 걸어가는 駱駝단 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綠陰속 활 쏘는 土人들에게라도
黃昏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地球의 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五月의 골사방이 아늑도 하니
黃昏아 來日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暗暗히 사라지는 시내스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 올줄 모르나보다

—「黃昏」—

陸史는 이 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民族을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世界의 抑壓받는 사람들에게 紐帶感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의 意識의 擴散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黃昏에 대해 希求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黃昏처럼 抑壓받는 사람들을 包容하고 慰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 서 있는 것이다.

Ⅲ-4. 歷史意識과 기다림의 哲學

陸史가 위에서 보아 온 葛藤을 힘겹게나마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現實과 歷史에 대한 탁월한 認識 때문이었다. ‘人類의 歷史는 항상 더 나은 것을, 더 完全한 것을 完成키 위한 勞力’²³⁾이며 ‘歷史란 항상 앞서가는 者만이 짓는 것’²⁴⁾이라는 그의 직관적 성찰은, 그로 하여금 個人보다는 集團의 올바른 삶에 집착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共同體的 認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民族의 참되고 자유로운 삶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北쪽 쓴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한 約束이여

한 바다북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에는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꽃」 -

23) “悔蔑의 書”, 全集, p.94.

24) “예술형식의 발전과 영화의 집단성”, 全集, p.94.

여기에서 ‘꽃’이란, 金允植에 의하면, 陸史 自身の ‘意志의 事物化’²⁵⁾이다. 陸史는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 때에도,’ 간단없이 피어났던 동방, 즉 우리 民族의 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過去의 歷史가 말해주듯 모진 苦難과 試鍊, 異民族의 침탈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훌륭히 이겨 선 우리 民族의 意志의 結實인 것이다. 陸史는 그렇기에 ‘북쪽 쏜드라’의 瘠薄한 땅에서도 ‘꽃맹아리’가 솟아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꼭 이루어진다고보다는 必然코 이루어야만 할 ‘저바리지 못할 約束’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狀況에서 볼 때 祖國光復은 不可能하고 또는 적어도 遙遠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라도 挫折과 拋棄를 받게 할 충분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挫折과 自己拋棄를 警戒하려고 陸史는 끊임없이 自己의 意志와 信念을 확인했다. 그것은 忍苦를 必要로 하는 自己鍛鍊이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陸史의 그런 自己鍛鍊의 한 모습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겸양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이래서 나는 내 氣魄을 키우고 길러서 金剛心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²⁶⁾

陸史에게 있어 信念의 確認으로서의 自己鍛鍊은 自身에게 賦與된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결국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詩를 쓰는 것조차 行動의 한 方便이었고 自身의 金剛心の 確認이었다.

푸른 하늘에 닿을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25) 金允植, “絕命地의 꽃”, 「韓國近代作家論攷」 (서울: 일지사, 1974), p.258.

26) “계절의 5행”, 全集, p.155.

넓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湖水속 깊이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喬木」—

悲劇적인 自己鍛鍊을 尖銳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詩에서 우리는 陸史의 行動의 無償性과 그의 金剛心の 氣概를 읽을 수가 있다. 自身の 精神의 加熱性을 위하여 外的 生存條件인 喬木의 生長마저 차라리 拒絕해 버리는²⁷⁾ 陸史의 克己의 態度는 東洋적인 선비정신의 典型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無化시킬 수 있을 때만이 참自己在 誕生한다는 宗教的 認識에서 나온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祖國光復에 대한 希願은 信仰心の 境地,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陸史의 詩는 온 몸을 던져서 얻어지는, 즉 悲劇적인 自己鍛鍊에서 나온 悲壯의 美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陸史의 詩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의 하나로 간주되는 「絶頂」은 그런 悲壯의 美學을 무엇보다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

매운 季節의 채썩에 갈겨
마침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27) 金允植, 前掲書, p.207.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絶頂」 -

漢詩 絶句의 構成法인 起·承·轉·結의 樣式을 착실하게 지킨 이 詩는 極度로 緊張된 言語節制와 內面의 精神을 가열화한 克己의 態度的 서로 相應하는 調和로 말미암아 상당히 아름다운 感動을 준다.

이 詩는 前半 1·2 聯과 後半 3·4 聯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의 두 연은 極限狀況에 대한 自身の 主觀的인 心情吐露이다. 「絶頂」이라는 詩의 題目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이라는 詩行이 암시하듯이, 여기에서 提示된 狀況은 아주 極限的인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것이다. 詩人(또는 詩 속의 話者)을 이러한 極限狀況의 지점으로 쫓아낸 것은 ‘매운 季節의 채썬’인데, 이것은 日帝의 暴壓的인 植民地 統治의 가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연의 ‘서릿발 칼날’이라는 이미지가 喚起하는 것처럼 이러한 極限狀況은 危機意識마저 同伴한다. 詩人은 여기에서 選擇과 決斷을 要請하게 된다.

그러나 詩人이 처하고 있는 狀況은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는 詩行에서 알 수 있듯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切迫한 것이다. 詩人은 이러한 切迫한 狀況에서, 狀況을 忌避하거나 挫折하지 않고 오히려 狀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 맞서는 たく한 意志를 보여준다. 金宗吉이 ‘비극적 황홀의 순간’²⁸⁾ 이라고 表現한 바 있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라는 詩行은 이를 感動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황홀은 단순한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철과 같은 차가운 非情과 날카로운 결의를 내포한 황홀’인 것이다.²⁹⁾ 極端的인 絶望

28) 金宗吉, “韓國詩에 있어서의 悲劇的 恍惚”, 前掲書, p.202.

29) 金宗吉, “陸史의 詩”, 前掲書, p.107.

의 시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意志, 金榮茂는 이를 ‘절망의 변증법’³⁰⁾이라 한 바 있다.

陸史에게 있어 이만큼 偉大한 精神의 領域이 可能했던 것은, 투철한 歷史意識뿐만 아니라 未來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希求의 想像力 때문이었다. 그가 想像해 낸 未來의 理想的인 世界는 그렇다고 특별하거나 새로운 어떤 공간이 아니라, 사실 過去의 그의 삶의 空間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自由롭고 平和로운 未來의 삶의 空間을 設定했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하여 現實的인 苦痛을 完全히 無化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超越의 몫이다.

내 고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담은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靑葡萄」 —

30) 金榮茂, “李陸史論”, 「創作과 批評」, 통권 36 호, p.203.

「青葡萄」의 世界는 陸史가 기다리는 未來의 理想郷의 世界이다. 豊饒한 生命과 結實이 있는 곳, 自由와 平和가 한꺼번에 간직된 世界이다.

이 詩에서 ‘고닭은 손님’에 관해서는 많은 論者들이 誤讀하고 있다. 흔히들 ‘광복’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解釋이다. 여기에서 ‘고닭은 손님’은 陸史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³¹⁾ 다시 말해서, ‘나’는 平和로운 時의 陸史를 가리키는 것이고, ‘고닭은 손님’은 抗日鬪爭에 身命을 던진 陸史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陸史는 現實의 自身の 고통스러움이 훗날에 幸福하게 慰安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現實을 넘어선다.

陸史의 투철한 歷史意識과 절절한 기다림의 意志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어 悠長한 感動을 주는 詩로 우리는 「曠野」를 들 수 있으리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光陰을
부즈런한 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曠野」 —

31) 金興圭의 前揭論文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p. 257.

IV. 陸史 詩의 史的 意義

이 章에서는 陸史 詩가 지니는 史的 價値 및 意義를 살펴 보기로 한다.

陸史 詩의 文學史的 意義에 관해서 既存의 文學史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해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가령, 白鐵의 文學史的 경우 아주 簡略하게 言及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陸史는 이 詩集(=陸史詩集：筆者註) 속의 象徵的인 言語와 華奢한 詩風으로 대번에 全文壇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 유니크한 詩風으로 해서 만능의 詩人이었을 뿐더러, 그 속에 靈感을 이루고 있는 祖國愛의 精神으로 해서 그의 作品은 한층 빛나는 것이었다.³²⁾

이런 정도의 言及으로 陸史의 文學史的 意義가 대략이나마 舉論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陸史의 文學史的 意義는 그 以前의 詩人들과 對比해 볼 때 顯著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흔히 지적되는 男性主義에 있다.

매운 季節의 채썩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러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

—「絶頂」의 一部—

사람의 품에 깃들면 등을 굽히는 짓새
山脈을 느낄사록 끝없이 게을너라

—「斑猫」중에서—

32) 白鐵, 「新文學思潮史」(서울:신구문화사, 1968), p.586.

壯士의 큰 칼집에 숨여서는

—「西風」 중에서 —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던 못하였으리라

—「曠野」 중에서 —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曠野」 중에서 —

넌 帝主에 길드린 蚊龍

—「南漢山城」 중에서 —

위에 든 몇 개의 예에서 우리는 그의 당당한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 동시에 ‘曠野’, ‘山脈’, ‘서릿발’, ‘채찍’, ‘超人’ 등에서 보이는 男性的 이미지와 그에 따른 詩語의 강렬성으로 인한 그의 힘있는 詩는 확실히 以前の 素月, 萬海 등의 女性主義가 지배하던 우리 詩를 생각해 볼 때 한결 두드러진 감이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그의 男性主義는, 20년대의 浪漫主義詩가 ‘喪失의 主題’³³⁾를 노래한 것처럼 비슷한 詩的 出發과 展開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탁월한 意志와 氣概로 克服한 것과 연관이 놓인다. 男性主義의 美學이 植民地 時代에 陸史같은 이를 통하여 成功을 거두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에 값할 것이다.

다음으로 30년대에 橫行했던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30년대의 모더니즘은 이미지즘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서, 20년대의 감상적 낭만주의와 偏內容主義에 反撥하여 일어난 이 땅의 文學運動의 하나이다. 그것은 詩

33) 金時泰, “李陸史論”, 「現代文學」 통권 269 호, p.54.

에 있어서 이미지의 重視, 技巧의 洗鍊, 繪畫的 感覺의 開拓 등으로 韓國 現代詩에 貢獻한 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결국 그러한 詩作方法의 極大化로 인해 오히려 感覺과 技巧의 洗鍊에만 置重하는 拙速한 技巧主義와 偏形式主義를 낳았다.

陸史는 모더니즘이 한창 팽배하는 30 년대에 詩作活動을 展開했으면서도 모더니즘의 세례에서 벗어나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였다. 물론 陸史에게 있어서도 모더니즘은 어느 정도 影響을 끼쳤는데, 가령 「바다의 마음」, 「狂人の 太陽」, 「小公園」 등 모더니즘의 失敗한 詩的 努力들이 그러한 趣向을 질게 보여준다.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핥귀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 「바다의 마음」 중에서 —

흰돌(白帆)은 바다를 칼질하고

— 上 同 —

거즈른 海峽마다 흘긴 눈초리

— 「狂人の 太陽」 중에서 —

한낮은 햇발이
白孔雀 꼬리우에 함복 퍼지고

— 「小公園」 중에서 —

그러나 陸史의 本領은 결코 그런 데 있지 않았고, 漢詩에 대한 깊은 素養과 傳統性에서 얻어진 形式의 均正, 言語의 嚴格한 節制, 生命意識의 昂揚으로 모더니즘의 機械的인 詩作을 넘어서 ‘개인적 서정의 심화의 가능성’³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陸史가 진정으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知性史의

34) 鄭漢模, “육사의 특질과 시사적 의의”, 「나라사랑」 16 집, p.68.

측면일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歷史家의 다음과 같은 일절에 그 評價를 맡겨둔다.

육사 이원복 선생! 그를 說明할 수 있는 가장 明瞭한 思想史的 좌표는 바로 歷史가 끊기려는 民族史 最大의 絶望에서 그것을 마지막 이어준 光復知性的 最後掉尾로 要約된다. 물론 이같이 光復 最後의 掉尾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줄기 知性은 반드시 光復의 可能性에 관계없이 의연히 歷史를 꿰뚫어 온 이 겨레의 活力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이 民族의 지조였고 또한 歷史의 義理였다.³⁵⁾

‘民族의 지조’이자 ‘歷史의 義理’, 그는 日帝의 殖民地 統治가 가장 酷毒한 時期에 最後까지 목숨을 걸고 鬪爭을 한 偉大한 詩人이었다.



35) 최창규, 前揭論文, p.27.

V.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陸史의 人間과 詩를 그의 意識의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陸史의 詩는 時間的 順序를 밟아서 變貌하거나 發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우리가 살펴 본 論理도 그의 詩世界가 갖고 있는 意味內容의 흐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기실, 사람의 意識이나 思考는 狀況에 對應하여 時間的인 順序나 段階를 밟아서 明瞭하게 展開되거나 變貌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混亂된 樣相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陸史의 意識의 樣相을 따라 그의 作品의 系譜를 追跡한 것은 오히려 보다 정당한 것일 수 있다.

또한 陸史의 詩에는 ‘이별을 슬퍼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붙이고, 몹시 괴로와 하고 하는 여러가지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³⁶⁾ 때문에, 우리가 理解한 陸史의 詩世界가 모든 것일 수는 없다. 文學은, 특히 詩는 하나의 論理만 가지고 圖式的으로 理解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닌 것이다.

아직까지 論議해 온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陸史의 精神的 支柱는 幼年期의 朱子主義的 傳統의 理念과 成長期에 거친 祖父의 영향과 新學問을 통하여 얻은 進歩主義的 思考의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ii) 陸史의 思想的 志向性은 그의 일련의 정치평론을 살펴보면 社會主義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의 社會主義的 志向性은 적극적 사회주의운동이나 이론투쟁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양심적 知識人이 갖는 批判意識의 측면으로 理解된다.

iii) 陸史의 詩의 出發은 殖民地 狀況의 어두운 現實에서 오는 悲劇的 世界認識

36) 金仁煥, 前揭論文, p.113.

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故郷喪失에서 오는 것으로, 이때의 고향상실이란 外的으로는 日帝의 침탈에 의한 植民地 狀況을 가리키는 것이고, 內的으로는 傳統的인 價値理念의 喪失, 즉 精神的인 ‘뿌리뽑힌 者’로서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국 陸史의 悲劇的 世界認識은 過去 幼年의 아름다운 故郷에 대한 동경과 회복의지로서의 自我의 眞實과, 日帝의 식민지 통치의 극렬한 억압으로 인한 그것의 불가능으로서의 세상의 허위와의 첨예한 대립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v) 陸史의 悲劇的 世界認識은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은 마침내 그에게 自嘲的인 태도와 쾌락적이고 안일한 삶에 대한 유혹에 젖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陸史의 정신적 바탕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전통의식과 선비정신의 志節은 그러한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陸史는 심한 갈등과 표랑을 겪는다.

vi) 하지만 陸史는 現實과 歷史에 대한 탁월한 認識으로 그러한 갈등을 힘겹게 뛰어넘는다. 民族의 참되고 자유로운 삶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리라는 신념의 확인 속에 끊임없는 自己鍛鍊을 통해 그러한 극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悲劇的인 自己鍛鍊에서 얻어진 陸史의 투철한 詩的 認識은 가히 悲壯의 美學이라 할 수 있다.

vii) 또, 그에게 있어 그러한 精神의 가열성이 가능했던 것은, 未來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希求의 想像力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유년공간과 유사한 未來의 理想郷을 설정하여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하여 現實的인 고통을 완전히 無化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超越의 몫이다.

viii) 陸史의 文學史的 意義는 ‘曠野’, ‘山脈’, ‘서릿발’, ‘채찍’, ‘超人’ 등에서 보이는 男性的 이미지리와 詩語의 강렬성으로 인한 男性主義 美學으로서 20년대의 素月·萬海 등의 女性主義 美學을 뛰어넘은 동시에, 30년대에 횡행했던 모더니즘의 폐단을 엄정한 형식과 언어절제, 생명의식의 앙양으로 극복한 데 있다.

ix) 知性史의 측면에서 볼 때 陸史는 歷史가 끊기려는 民族史 最大의 絶望에서 그것을 마지막 이어준 光復知性의 最後掉尾로 要約된다.

그는 日帝의 植民地 統治가 가장 酷毒한 時期에 最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 위대한 詩人이었다.



參 考 文 獻

1. 金炳翼外 共著.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서울:민음사, 1974.
2.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 서울:국민서관, 1973.
3.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서울:일지사, 1974.
4. 金禹昌. 「궁핍한 時代의 詩人」. 서울:민음사, 1977.
5. 金允植. 「韓國近代作家論攷」. 서울:일지사, 1974.
6. 金仁煥. 「文學과 文學思想」. 서울:열화당, 1978.
7. 金宗吉. 「眞實과 言語」. 서울:일지사, 1974.
8. 白鐵. 「新文學思潮史」. 서울:신구문화사, 1968.
9. 李陸史. 「曠野」. 서울:민음사, 1977.
10. 「李陸史全集」. 서울:정음사, 1975.
11. 「나라사랑」. 16 집. 서울:정음사, 1974.
12. 「文學思想」. 통권 40 호. 서울:文學思想社, 1976.
13. 「創作과 批評」. 통권 36 호. 통권 40 호. 서울:創作과 批評社, 1974. 1975
14. 「韓國現代史」. 제 5 권. 서울:신구문화사, 1968.
15. 「現代文學」. 통권 269 호. 서울:現代文學社, 1977.

(Abstract)

A Study on Yuk-sa Lee Won-rok

Kim Sung-rip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ung-hae

During Japanese rule, Won-rok Lee (Yuk-sa, 1904-1944) was an excellent writer of modern Korean poetry. All his life he was a patriot, a revolutionary fighter with an under-fatigable poetic spirit.

He came under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taught by his parents and died in jail just 1 year before liberation. Throughout his short life, however, he wrote no fewer than 40 works of inestimable value which revealed his unyielding spirit and excellent poetic skills.

Yuk-sa's patriotic poetry recognized the tragic world of the time, the conflict and frustration, "the pressure of dreadful situation and the agonies of wating. The poetry of Yuk-sa can be termed "the Art of Tragic Beauty". Society seemed to him to have deteriorated. The results of Japanese occupation filled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with agony and tension and made his actions inevitable.

However, he overcame the frustrations with the declining social phenomena around him with his strong will. Through self-sacrifice in the midst of trial and tribulation, when the Korean language was at the mercy of the Japanese regime. We are justifiably proud of his patriotic poems and his sense of moral valu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4.